제 7차,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 비교 분석*

양 승 관**
(Yang, Seung-Kwan)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Basic Vocabulary Lists' of the National Spanish Curriculum for High School(1997, 2007 & 2009)

This paper explores the problems of the 'Basic Vocabulary Lists' of Spanish education presented under the 7th curriculum, 2007-revised curriculum and 2009-revised curriculum for high school suggesting an unilateral solution. The basic vocabulary list of the 7th Curriculum has been strongly criticized by several professors teaching the second or foreign languages, since the lexicon is selected arbitrarily without systematic study of basic vocabulary. Therefore, the basic vacabulary list was revised again in 2007 and 2009 from the previous 7th Curriculum. But it is hard to find a reasonable and unilateral criterion to include some vacabularies in the basic vocabulary list. Thu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current 2009-lexicon is drawn systematically depending on the communicative functions and whether his drafting has been done effectively for Spanish curriculum for high school. This paper, therefore, aims, firstly, to review the basic Spanish vocabulary of the 7th Curriculum, 2007-revised curriculum and 2009-revised curriculum, and secondly, to propose some appropriate solutions to draft a new basic Spanish vocabulary for the following curriculum.

[Key Words: National Spanish Curriculum/ basic vocabulary list/ unilateral criterion / basic Spanish vocabulary/ comparative analysis]
[주제어: 스페인어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 일관된 기준/ 스페인어 기본 어휘/ 비교 분석]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육과정을 위하여 개발된 기본 어휘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적해 보고, 보다 적합하고 체계적인 기본 어휘표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 교육과정인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를 함께 비교 분석할 것이다.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스페인어 교육학과
E-mail: skygap@hanmail.net

특정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 어휘는 방대하기 때문에 어휘 학습은 일정한 분량을 단계별로 진행시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어휘 선정에 큰 관심을 갖고 교육용 어휘 목록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고등학교용 기본 어휘 목록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는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낱말들을 제시하여 교재 편찬의 지침이 되는 동시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교육 내용 및 평가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본 어휘표 제작을 통해 교육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제거해야 한다.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도 외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일선 교사들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육과정 상황을 고려하여 어휘수를 조정하는 등 개정되어 제안되었다.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는 제 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본 어휘표에서 출발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어휘표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 어휘목록이 이전의 교육과정들에서 제시된 기본 어휘목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향후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앞두고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의 개선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기본 어휘표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정 및 보강의 필요성을 제안하겠다.

II. 기본 어휘 연구의 필요성

교육 내용을 형태에 중심을 두었던 과거의 교육학 시대에는 어휘 선택의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학습자의 언어 요구와 언어 사용의 실재성에 근거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과 실재 자료 활용을 중요시하는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어휘의 선택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소통 접근법은 학습자의 언어 요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가르칠 어휘를 교육 이전에 결정하지 않으며, 교육 상황에 따라 후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며, 그 선택은 매우 신축성 있고 다양하며 유연하다[2]. 이와 같이 의사소통 접근법은 학습자의 언어 요구에 따라 그리고 언어 상황에 보다 적합한 표현을 하기 위해 어휘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의사소통 접근법이 학습자의 언어 요구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기본 어휘는 부적절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의 특수한 여건 하에서는 기본 어휘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들이 있다. 첫 번째로, 기본 어휘 목록은 교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육은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이고,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가르칠 수 있는 어휘의 양을 한정한다는 것은 학습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세 번째로, 스페인어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중요한 어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본 어휘 목록은 스페인어를 가르

1) cf. 이근님 외(2005: 126).

2) 과거의 구조주의 교육 방법론은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배워야 할 기본적인 어휘들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이 경제성과 보편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고, 교육 내용을 선험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배우는 어휘 내용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었고 융통성이 없이 적용되었다. cf. 한상헌(2004).

치는 현장 교사들을 위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대학입시의 시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본 어휘의 설정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로, 교과서의 집필 저자들에게 중요한 어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고 자료로서의 기본 어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교재 제작에 있어서 기본 어휘 목록을 제시해 주면 학습 내용의 범위를 가시화해 줄 수 있고, 집필자들에 따른 교재 내용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교과서의 수업 내용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어휘 목록은 외국어 학습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고 기능과 용도 그리고 회화체가 중시되어 어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3]. 이는 풍부한 어휘력이 없이는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4]. 따라서 의사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최근의 외국어 교수법에서는 적절한 어휘의 선택 및 효과적인 구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휘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기본어휘 목록도 조금씩 수정하고 개선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어휘들은 변화하는 학생의 언어 요구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즉, 실재성에 부합하는 어휘를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재 집필자에게는 자유로운 교재 제작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기본 어휘를 어떻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선정할 것인지 하는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본 어휘표가 어떻게 제작되어 제시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연관되며, 이것이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내용이다.

III. 제 7차,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1. 외형적인 문제

1) 어휘 배열상의 문제

제 7차,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는 다음과 같은 외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어휘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에서 어휘 배열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

3)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휘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김광해(1997), 김경희(2001: 4), 김창원(2012) 등은 모국어 화자가 외국인의 발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휘적 오류를 문법적인 오류보다 더 큰 방해 요인으로 보았다. 문법적인 오류는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어휘적 오류는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어휘 습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4) 언어의 네 기능인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에 있어서도 어휘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듣기에 있어서 청취 이해력을 향상시키려면 청자는 어휘 학습을 통해 변별적 음소, 어휘범주, 문법적 어군, 품사 등을 구별하고 인식해야 한다. 말하기에 있어서 언어의 형식, 어휘에 대한 이해 및 연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휘력이 증대되지 않으면 말하기 능력도 학습 초기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읽기도 학습자의 어휘 확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어휘 능력은 바로 읽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쓰기는 어휘를 확장하는데 인식 및 기억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1) 제 7차 교육과정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 어휘 배열 오류:

(a) avión이 ayudar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autobús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b) casete가 caso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casar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c) limón이 libre 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ligero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d) quinto가 quiosco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배열해야 한다.

1994년 이후 스페인어 어휘의 배열 규칙이 개정되었다[5]. 즉, 사전에서의 어휘 배열, 참고문헌이나 인명 목록에서 사람 이름의 배열 등과 관련해서 ch로 시작하는 단어는 ce와 ci 사이에 위치시키며, ll로 시작하는 단어는 li와 lo 사이에 위치시킨다[6]. 제 6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는 Ch와 Ll 칸이 따로 있었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Ch와 Ll 칸이 따로 있지 않아 1994년 이후 개정된 스페인어 어휘의 배열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는 이러한 어휘 배열에 관한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2) 1994년도에 개정된 규정을 반영한 어휘

(a) chaqueta, chico, chocolate가 cerveza와 cielo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b) llamar, llave, llegar, lleno, llevar, llorar, llover, lluvia가 listo와 lo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3) 1994년도에 개정된 규정을 반영 안한 어휘

(a) allí가 alumno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alguno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b) callar, calle가 calor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calor보다 앞에 배열해야 한다.

(c) coche가 cocinar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cocina보다 앞에 배열해야 한다.

(d) ochenta, ocho, octavo가 ocupado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o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e) pantalla가 pantalón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배열해야 한다.

이와 같이, 1994년도에 개정된 규정을 반영한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가 무분별하게 섞여 배열되어 있는데, 개정된 규정을 따라 (3)에 제시된 어휘들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해야 한다.

위에 제시된 어휘들은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는 삭제된 어휘를 제외하고는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여 모두 바르게 배열되어 개선되었다.

그런데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 아직까지 어휘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4) 2007 개정 교육과정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 어휘 배열 오류:

(a) año가 ánimo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antiguo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

5) cf. RAE(1999).

6) 실제로 1994년 이전에 스페인에서 출판된 사전에서는 ch로 시작되는 단어는 C가 아닌 Ch에서, 그리고 ll로 시작되는 단어는 L이 아닌 Ll에 배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에 출판된 사전에서부터는 ch로 시작되는 단어는 C에 그리고 ll로 시작되는 단어는 L에 배열하여, 보편적인 라틴어 알파벳 순서(el orden alfabético latino universal)를 따르고 있다.

(b) bañar가 baloncesto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bandera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c) mañana가 malo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manzana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d) señor와 señorita가 semana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sentir 다음에 배열해야 한다.

위의 어휘들은 제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는 정상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배열되었다.

(5) 2009 개정 교육과정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 어휘 배열 오류:
(a) cielo가 ciencia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ciencia 앞에 배열되어야 한다.
(b) comer가 comercial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comercial 앞에 배열되어야 한다.
(c) interesante가 interesar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interesar 앞에 배열되어야 한다.
(d) importar가 imposible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배열해야 한다.
(e) papa, papá가 pastel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papel 앞에 배열해야 한다.
(f) turismo가 turista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배열해야 한다.

세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를 살펴본 결과 어휘들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오류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의 어휘 배열 오류가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는 개선되어졌다. 그런데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휘가 보강되거나 삭제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어휘 배열의 오류가 생겼다.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휘 배열 오류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소한 외형적 오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수정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5)에 제시된 배열이 잘못되어 있는 어휘들은 향후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 수정 시에 어휘 배열을 정확하게 수정해야만 한다.

2)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과의 연관성 문제

두 번째로, 의사소통 예시문에 사용된 어휘와 기본 어휘표의 어휘가 별 연관성을 갖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즉, 기본 어휘표에 없는 어휘들이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사용되고 있다. 아래 도표 (6)은 제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 없는 어휘인데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는 사용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의 반영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6)

제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 없는 어휘	제 7차 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2007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 반영 여부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 반영 여부
guapo	Qué guapo!	○	○
suerte	Buena suerte!	○	○
vista	Hasta la vista!	○	×
recto	Siga todo recto.	○	○
girar	Gire a la derecha.	○	○
esquina	Gire a la derecha en	○ Gira a la izquierda	○ Gire a la derecha

	la esquina.	en la esquina. 로 바뀜	en la esquina. 로 바뀜
repetir	¿Puedes repetir?	○ ¿Puedes repetirlo?로 바뀜	○ ¿Me puede repetir? 로 바뀜
amarillo	Lleva una camisa amarilla.	○ Lleva una camisa blanca.로 바뀜	○ Lleva gafas.로 바뀜
disculpar	Disculpe.	○	○
calmar	Cálmate!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basta	Basta!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humor	Estoy de mal humor.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Dios	Dios mío!	×	×
supuesto	Por supuesto.	○	○
final	Está al final de esta calle.	○	○
fondo	Está al fondo.	○ El servicio está al fondo.로 바뀜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opinar	¿Qué opinas?	○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bravo	Bravo!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
lástima	Qué lástima!	○	○
ánimo	Ánimo!	○	○
aló	¿Aló?	×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rubio	Tiene pelo rubio.	○ Tiene el pelo rubio. 로 바뀜	○ Tiene el pelo rubio. 로 바뀜
tristeza	Qué tristeza!	○ 의사소통 예시문 삭제됨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gusto	Mucho gusto!	○	○
encantado	Encantado!	○	×
probable	Es probable.	○	기본 어휘 및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삭제됨
interesar	No me interesa.	×	○
permiso	Con permiso.	○ Con su permiso.로 바뀜	○ Con permiso.로 바뀜

제 7차 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는 사용되었으나 기본 어휘표에 없는 어휘들이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는 삭제된 어휘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정되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 반영이 않된 경우를 볼 수 있어 향후에 수정이 요구된다.

(7)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 없는 어휘	의사소통 기본 표현[7]
vista	Hasta la vista!
dios	Dios mío!
bravo	Bravo!
encantado	Encantado!

3) 주제별 어휘 및 주변 어휘 선정 문제

세 번째로,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가 기본 어휘표에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어휘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변 어휘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필요한 어휘들을 보강해 주고 불필요한 어휘들을 제외시키면서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휘를 선정하거나 제외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는 설명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 (8)의 도표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있는 주제별 어휘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들에서 보강되거나 제외된 어휘들을 보여주고 있다.

(8)

교육과정 / 주제별어휘	제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1) 마실 것과 관련된 어휘	agua, botella, café, cerveza, chocolate, jugo, leche, refresco, vaso, vino, zumo	jugo 제외됨. bebida, copa, lata, taza 보강됨.	café, cerveza, chocolate, lata가 제외됨. jugo가 다시 보강됨.
(2) 색과 관련된 어휘	azul, blanco, naranja, negro, rojo, verde	amarillo, marrón, violeta 보강됨.	marrón, violeta 제외됨.
(3) 음식과 관련된 어휘	almorzar, apetito, arroz, azúcar, cena, cocina, cocinar, comedor, comer, cuchara, cuchillo, desayunar, helado, jamón, pan, pastel, patata, pescado, plato, pollo, postre, sal, sopa, tenedor, tomar	jamón, pastel 제외됨. almuerzo, cenar, cocinero, desayuno, ensalada, gusto, marisco, palillos, pimienta, servilleta 보강됨.	jamón, pastel이 다시 보강됨. palillos, pimienta가 다시 제외됨.
(4) 신체와 관련된 어휘	boca, cabeza, cara, corazón, dedo, diente, lengua, mano, nariz, ojo, peine, pelo, pie, pierna, voz	estómago, oreja, pecho 보강됨.	piel 보강됨.

7) 제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이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바뀌었다.

(5) 운동과 관련된 어휘	campo, fútbol, jugar, nadar, pelota, piscina, tenis, toro	fútbol, tenis 제외됨. baloncesto, partido 보강됨.	ｂａｌｏｎｃｅｓｔｏ, partido 다시 제외됨. equipo 보강됨.
(6) 방향과 관련된 어휘	este, norte, oeste	sur 보강됨.	2007과 동일
(7) 집과 관련된 어휘	cama, casa, cuarto, entrar, pared, puerta, silla, ventana	mesa 보강됨.	2007과 동일
(8) 날씨와 관련된 어휘	agradable, caliente, calor, frío, hacer, llover, lluvia, nieve, nevar, paraguas, sol, tener, viento	nube, nublado, fresco, sombra 보강됨.	lluvia 제외됨. caluroso 보강됨.
(9) 가족과 관련된 어휘	abuelo, padre, madre, hermano, hijo, nieto, primo, sobrino, tío, marido, mujer, muchacho, chico, niño	제 7차와 동일	mamá, papá 보강됨. marido 제외됨.
(10) 직업과 관련된 어휘	alumno, estudiante, profesor, maestro, camarero, médico, doctor, enfermero	autor, bailarín, escritor, actor, actriz 보강됨.	autor, bailarín이 다시 제외됨. azafata, mecánico, oficial 보강됨.
(11) 성격과 외모와 관련된 어휘	simpático, amable, alegre, inteligente, alto, bajo, bonito, hermoso, grande, pequeño, delgado, gordo, joven, viejo, feo	guapo, rubio 보강됨.	lindo 보강됨.
(12) 옷과 관련된 어휘	camisa, pantalón, blusa, abrigo, falda, traje, corbata, chaqueta, guante, sombrero, zapato, calcetín	vestido 보강됨.	vestido, chaqueta 제외됨. gorra가 보강됨.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제인 '마실 것과 관련된 어휘' agua, botella, café, cerveza, chocolate, jugo, leche, refresco, vaso, vino, zumo 등이 7차 기본 어휘표에 제시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어휘들과 함께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주변 어휘들인 bebida, copa, lata, taza 등이 보강되었고, jugo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café, cerveza, chocolate, lata가 제외되고, 다시 jugo가 추가되었다. 어떤 어휘들은 보강해주고 또 다른 어휘들은 제외시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jugo와 같은 동일한 어휘는 교육과정마다 기본 어휘표에 선정과 제외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8][9]. 두 번째 주제 어휘인 '색과 관련된 어휘'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8) jugo와 함께, '성격과 외모와 관련된 어휘'에 lindo라는 어휘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되어졌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스페인 스페인어를 표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어휘들은 기본 어휘표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있었던 computadora라는 어휘가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 제외된 사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는 marrón과 violeta가 선정되어 개선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두 어휘가 제외되고 있다. 세 번째 주제 어휘인 '음식과 관련된 어휘'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있던 jamón과 pastel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보강되어졌다. 앞에 제시한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나머지 주제의 어휘들에서도 이와 같이 일관적이지 않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기본 어휘나 주변 어휘가 부족하였지만,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어휘를 새로 보강해주거나 제외하는데 있어서 일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데 추후 교육과정에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2. 내적인 측면의 문제

1) 기본 어휘 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대안

제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어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스페인어 기본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10].

(9) <표 1>

○ 기본 어휘표는 문법어와 내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 동사, 명사, 형용사는 그 대표형만을 제시한다. ir(vas, fue, yendo) libro(libros, libritos) hijo(hija, hijas) bueno(buena, buenos, mejor) ○ 기수와 서수는 이 어휘표에 제시된 것 이외의 것도 이 표에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는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스페인어 기본 어휘를 세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9)의 <표 1>에 따르면, "동사, 명사, 형용사는 그 대표형만을 제시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먼저, 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동사의 경우 불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변화형을 동사 원형이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동사 원형 하나만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면서 ir(vas, fue, yendo)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규정해 놓고 있다[11].

---

9) 사실 표준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어휘 목록은 현재의 의사소통 접근법과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언어 행위에서 대화자는 발화자가 선택하는 담화의 모든 유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에 따라 또는 화자들의 사회·문화적 신분에 따라 어휘나 표현들은 표준어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육은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이고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 내용을 규정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가르칠 수 있는 어휘의 양을 한정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교육 내용을 한정한다는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 중 하나가 표준어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10) 교육부(1997a: 208).

(4) 동사의 경우에는 원형만을 제시한다.
예) amar (→ 인칭 변화형[amo, amas, ama 등]; 현재 분사[amando], 과거 분사[amado])
단, 사전 표제어로 나오는 과거 분사는 독립 어휘로 간주해 별도로 기재한다(스페인 왕립학술원 사전 기준). 예) abierto, cansado, casado, cerrado 등

동사의 경우 원형만 제시한다고 하면서, "사전 표제어로 나오는 과거 분사는 독립 어휘로 간주해 별도로 기재한다."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기본 어휘의 수가 매우 증가하여 1077개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한 부분을 볼 수 있다[12].

(7) 동사의 경우에는 원형만을 대표로 제시하며, 그 동사의 활용형과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abrir (abro, abrí, abría, abriendo, abierto, abierta)
또한 해당 과거분사와 동일한 형태의 어휘가 갖는 모든 의미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abierto 'abrir의 p.p.', '개방적인', '솔직한'; partido 'partir의 p.p.', '경기', '정당'

그러나 "해당 과거분사와 동일한 형태의 어휘가 갖는 모든 의미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은 아래의 조항[13]과 상충되어 불필요한 설명이 되고 있다.

(2) 기본 어휘표에 제시된 어휘가 갖는 모든 의미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estación '계절', '역'; general '일반적인', '장군'; cuarto '네 번째의', '방'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동사의 경우 동사 원형만을 대표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범위에 현재 시제이외에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과거시제(단순과거와 불완료 과거), 미래시제(미래 완료형은 제외)가 포함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원형만을 대표형으로 제시한다: abrir (abro, abrí, abría, abriré, abriendo, abierto)'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선택안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명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9)의 <표 1>에 따르면, 명사의 경우 그 여성형이나 복수형 그리고 축소형 모두의 대표형으로 남성 단수형 하나만을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면서 libro(libros, libritos), hijo(hija, hijas)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규정해 놓고 있다[14].

11) 교육인적자원부(2007: 224).
12) 교육과학기술부(2009: 193).
13) 교육과학기술부(2009: 192).
14) 교육인적자원부(2007: 223-224).

(2) 명사 [...] 같이 성과 수가 변하는 형태들은 남성 단수형만을 대표로 제시한다.
예) hijo (→ hija, hijos, hijas)
señor (→ señora, señores, señoras)
단, 성 변화 형태가 불규칙한 명사는 남·여성 단수형을 모두 제시한다.
예) actor-actriz, rey-reina, príncipe-princesa 등

단서 조항으로 성 변화 형태가 불규칙한 명사는 남·여성 단수형을 모두 제시한다고 하며 예로 actor-actriz, rey-reina, príncipe-princesa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 어휘표에 tigre는 있는데 tigresa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불규칙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단서 조항만 삭제해 명사의 산정 기준을 좀 간단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15].

(4) 명사는 남성 단수형만 대표로 제시하며, 성·수에 따른 해당 명사의 다른 형태는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hijo (hija/ hijos/ hijas)

따라서 명사의 경우에 그 여성형이나 복수형(불규칙형 포함) 그리고 명사의 축소형을 포함하여 남성 단수형 하나만을 대표형으로 취하여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사는 남성 단수형만을 대표형으로 제시한다: hijo (hija, hijos, hijas, hijito)'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선택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형용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9)의 <표 1>에 따르면, 형용사의 경우 대표형으로 남성 단수형 하나만을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면서 bueno(buena, buenos, mejor)를 제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형용사의 여성형, 복수형 그리고 비교급은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16].

(2) [...] 형용사 [...] 등과 같이 성과 수가 변하는 형태들은 남성 단수형만을 대표로 제시한다.
예) bueno (→ buen, buena, buenos, buenas)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형용사의 경우 불규칙 비교급에 해당하는 어휘가 수록되지 않은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용사의 불규칙 비교급 어휘가 기본 어휘표에 수록되고 있다: 예로, mayor, mejor, menor. 그런데 특이하게도 peor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형용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비교급에 대한 언급 없이 기본 어휘표에서 앞의 비교급 어휘 3개를 모두 삭제하고 있다[17].

15) 교육과학기술부(2009: 192).
16) 교육인적자원부(2007: 223).
17) 교육인적자원부(2009: 192).

(5) 문법 기능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형용사, [...]는 남성 단수형만을 제시하고 그 외의 형태는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bueno,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형용사의 경우에 그 여성형이나 복수형(불규칙형 포함), 어미 탈락형 그리고 비교급 어휘를 포함하여 남성 단수형 하나만을 대표형으로 취하여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용사는 남성 단수형만을 대표형으로 제시한다: bueno (→ buen, buena, buenos, buenas, mejor)'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선택안이 될 것이다.

한편, 부사와 관련해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9)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부사와 관련해서 "부사의 경우, 독립 어휘(bien, mal, despacio 등)만 기재하고 복합 형태인 '형용사 + mente'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하고 있다[18]. 이에 따라 기본 어휘표에 -mente형 부사가 수록되지 않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부사와 관련해서 유사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부사의 경우, '형용사+mente'형의 부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그 형용사만 제시되어 있으면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claro (claramente), general (generalmente)"[19]. 그렇다면 '형용사+mente'형의 부사는 기본 어휘표에 넣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atentamente가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atento라는 형용사를 수록하고 atentamente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20].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부사는 독립 어휘만 기재한다. 형용사+mente 부사는 형용사가 제시되어 있으면 기본 어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claro (claramente).' 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선택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수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9)에 제시된 <표 1>에 나타난 수사의 어휘 산정 기준을 보면, "기수와 서수는 이 어휘표에 제시된 것 이외의 것도 이 표에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다."[21]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수와 서수를 기본 어휘표에 명기하고 있다: 기수 - cero, uno, dos, tres, cuart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once, doce, trece, catorce, quince, dieciséis, veinte, treinta, cuarenta, cincuenta, sesenta, setenta, ochenta, noventa, cien(to), mil; 서수 - primero, segundo, tercero, cuarto, quinto, sexto, séptimo, octavo, noveno, décimo. 기수의 경우 cero부터 quince까지 제시되고 있다. 또한 dieciséis가 개별적인 낱말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복합형 숫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생각된다[22]. 십 단위는 veinte부터 cien(to)까지 그리고 mil이 제시되어 있다. 서수의 경우 primero에서 décimo까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 방식이 근거가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어휘의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사와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이 발견된다. 기본 어휘표에 제시된 수사 관련 어휘 산정 기준을 살펴보자[23]:

---

18) 교육인적자원부(2007: 224).

19) 교육과학기술부(2009: 192).

20) RAE(2011: 8)는 '-mente'형 부사의 경우 그 수가 무한하므로 decisivamente나 abruptamente와 같은 경우 수록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21) 교육부(1997a: 208).

22) Gómez Torrego(1997: 92)에 따르면, 기수는 단순형(forma simple) uno, dos,... diez, once, doce,... veinte, treinta 등과 복합형(forma compuesta) dieciséis, treinta y uno, ciento uno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 교육인적자원부(2007: 223).

1. 동음이의어 규정
기본 어휘표에는 형태만을 기재하므로 그 형태가 갖는 의미와 품사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estación '역', '계절'; general '일반적인', '장군'; real '왕실의', '실재하는' 등
2. 품사 및 파생 규정
(1) 지명 및 인명 등과 같이 무한 수인 고유 명사와 그 파생 형용사 및 수사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España-español, Corea-coreano; Carlos, María; Navidad, Las Fallas 등
단, 수사 중에서 다른 문법 기능이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시한다.
예) uno (부정관사), primero '먼저', segundo '초', cuarto '방'

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과 달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수가 모두 기본 어휘표에 수록되지 않았다. uno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정관사로 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서수의 경우 primero, segundo, cuarto가 수록되어있다. primero는 부사, segundo는 의존명사 그리고 cuarto는 일반명사로 제시하고 있다. 이 어휘들이 수사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서수만을 기본 어휘표에 수록하는 것은 '1. 동음이의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선택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 어휘표에는 형태만을 기재하므로 그 형태가 갖는 의미와 품사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음이의어 규정'과 무한 수인 수사는 기본 어휘표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데, 다른 문법 기능이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시한다고 하는 '품사 및 파생 규정'과는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24]. 차이가 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uno를 부정관사로 수록하고 있는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un과 uno가 모두 기본 어휘표에 수록되고 있다. 수형용사이자 부정관사 역할을 하는 un이 남성 단수형으로 제시된 것이며, uno의 수록은 부정관사가 아닌 부정대명사의 용법(Cada uno tiene su casa)으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에 근거한 수록이라고 볼 수 있다[2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의 어휘 산정 기준들이 수사와 관련해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추후에 수정이 요구된다. '수는 무한 집합에 해당하므로 기본 어휘표에 별도로 제시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6].

계속해서 고유명사에 대한 어휘 산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9)의 제 7차 교육과정 <표 1>에 따르면,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는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다[27]. 고유명사

24) 교육과학기술부(2009: 192).

(2) 기본 어휘표에 제시된 어휘가 갖는 모든 의미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estación '계절', '역'; general '일반적인', '장군'; cuarto '네 번째의', '방'
또한 기본 어휘표의 어휘를 이용한 전치사구, 부사구 등도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en lugar de, en medio de; tal vez, pasado mañana, a veces
(3) 고유 명사와 그 파생형 그리고 수사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España - español, Corea - coreano, América Latina - latinoamericano; Carlos, María; Navidad, Las Fallas; tres, mil, quinto

25) 곽재용(2012: 244).

26) 마찬가지로 윤영순(2010: 32)에서도 "수사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무한하므로 일일이 열거하여 기본 어휘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본 어휘표에 기수와 서수를 제시하지 않아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어휘 수 산정에서는 제외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는 무한 집합에 해당하므로 기본 어휘표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유 명사와 관련하여, "지명 및 인명 등과 같은 무한 수인 고유 명사와 그 파생 형용사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 España-español, Corea-coreano; Carlos, María; Navidad, Las Fallas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단서 조항으로 "춤, 음악, 음식 등과 관련된 어휘들 또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flamanco, tango; mariachi, tuna; chorizo, espagueti, gazpacho, jamón, paella, pastel, queso, taco, tarta, tortilla 등"을 제시하고 있다[28]. 이러한 사항은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3) 고유 명사와 그 파생형 그리고 수사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España - español, Corea - coreano, América Latina - latinoamericano; Carlos, María; Navidad, Las Fallas; tres, mil, quinto"[29]. 그런데 현재의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빠져 있던 jamón과 pastel이 그 어떤 근거나 설명 없이 다시 수록되어졌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기수와 서수 및 고유명사는 하나로 통합하여 '수사와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및 그 파생형은 새로운 낱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문법어의 어휘 산정 기준을 살펴보자. (9)에 제시된 제 7차 교육과정 <표 1>에 따르면, "기본 어휘표는 문법어와 내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30]. 이 조항만으로는 문법어에 대한 어휘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기본 어휘표의 문법어 어휘들을 살펴보면 그 산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내용어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부분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점들이 발견된다. 내용어인 명사나 형용사의 경우에 그 여성형이나 복수형이 불규칙이라 하더라도 기본형 하나만을 어휘로 산정하는 반면, 문법어의 경우는 내용어와 달리 성·수에 따른 변화형이 불규칙일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인 낱말로 취급하고 있다. 먼저, 관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남성 단수 정관사 el에 대한 복수형 los는 기본 어휘표에 있는 반면, 여성 단수 정관사 la에 대한 복수형은 없다. 반면에, 남성 단수 부정관사 un에 대한 복수형은 unos가 되어 불규칙인데 기본 어휘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관사와 같이 성과 수가 변하는 형태들은 남성 단수형만을 대표로 제시한다: 예) el (→ la, los, las, lo), uno (→ un, unos, unas)[31]. 마찬가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문법 기능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관사는 남성 단수형만을 제시하고 그 외의 형태는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el, un[32]. 두 교육과정 모두에서 관사의 경우 남성 단수형만 제시하여 간단하고 바람직하게 어휘 산정 기준이 개선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33].

이번에는 대명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인칭대명사를 보자.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칭대명사

---

27) 교육부(1997a: 208).
28) 교육인적자원부(2007: 223).
29) 교육과학기술부(2009: 192).
30) 이러한 조항은 불필요하다. 제 6차 교육과정의 경우 기본 어휘표가 둘로 나뉘어져, 어휘표 I는 문법어이고, 어휘표 II는 내용어였다. 이 경우라면 위의 조항이 필요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다.
31) 교육인적자원부(2007: 224).
32) 교육과학기술부(2009: 192).
33) 차이가 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부정관사를 uno로 명기한 반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un으로 명기하고 있다.

él에 대한 복수형 ellos는 있는 반면, ella와 usted의 복수형 ellas와 ustedes는 없다. 이는 복수형으로 단순히 -(e)s만 추가되는 것이 규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별 다른 설명 없이 él에 대한 복수형 ellos가 삭제되어졌다. 목적격 대명사의 경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lo에 대한 복수형 los는 있고, le와 la의 복수형 les와 las는 기본 어휘표에 없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목적 대명사는 모두 기재한다. 단, 목적대명사의 3인칭 복수형(les, las, los)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으로 바뀌었다[34].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칭 대명사는 주격만을 제시하되, 문법 기능에 따른 변화형은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으로 단순하게 개선되었다[35]. 따라서 간접 및 직접 목적격 대명사, 전치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등의 문법어들이 기본 어휘표에서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및 직접 목적격 대명사 me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오류로 수정되어져야 한다.

지시대명사의 경우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지시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남성 단수형만 대표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36].

(2) 명사, 형용사, 관사 등과 같이 성과 수가 변하는 형태들은 남성 단수형만을 대표로 제시한다.
예) este (→ esta, estos, estas, esto)
ese (→ esa, esos, esas, eso)
aquel (→ aquella, aquellos, aquellas, aquello)
(3) 대명사의 경우, 지시 대명사는 지시 형용사 규정에 준한다.
예) éste (→ ésta, éstos, éstas, esto)
ése (→ ésa, ésos, ésas, eso)
aquél (→ aquélla, aquéllos, aquéllas, aquello)

그런데 위에서 지시형용사에 대한 예를 들면서 괄호 안에 중성 esto, eso, aquello를 표기하고 있다. 지시형용사에 중성형은 없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오류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ésta라는 지시대명사 여성형이 기본 어휘표에 기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정되어야 할 오류이다. 한편, 최근의 RAE(2011b)에 따르면, 지시형용사와 지시대명사를 구분해 주던 강세가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여 두 품사 구분 없이 강세가 없는 este, ese, aquel만 기재하여 간결하게 개선되어졌다. 이는 "지시사는 남성 단수형만을 제시하고 그 외의 형태는 기본 어휘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37]라는 조항과도 부합한다. 그런데 중성 대명사 esto, eso, aquello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명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문법어를 산정하는 방식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어졌다. 다만 해당 조항과 맞지 않는 어휘들이 실수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종합해 보면, 문법어의 경우에도 규칙형과 불규칙형 모두를 남성 단수형 하나만 제시하는 것이 간

34) 교육인적자원부(2007: 224).
35) 교육과학기술부(2009: 193).
36) 교육인적자원부(2007: 223-224).
37) 교육과학기술부(2009: 192).

단하고 명료하다: el(la, los, las, lo), uno(un, una, unos, unas) / este(esta, estos, estas, esto), ese(esa, esos, esas, eso), aquel(aquella, aquellos, aquellas, aquello). 결국, 문법어와 내용어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남성 단수형만을 대표형으로 통일하여 기본 어휘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휘 산정 기준을 제시하면, 기본 어휘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교과서 저자들에게 어휘 선택과 관련하여 집필상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 어휘표에 수록하지 않아도 기본 어휘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어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어휘들이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Ⅳ. 결론

고등학교 스페인어 제 7차,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각각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어휘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를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어휘 수록의 선정 및 산정 기준이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외형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각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에서 몇몇 어휘들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오류들이 있었다. 둘째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사용된 어휘와 기본 어휘표의 어휘 사이에 연계성 문제가 교육과정이 개선될 때마다 많이 개선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였다. 세 번째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어떤 어휘들을 선정하거나 제외시키는데 있어서 일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내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적이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어휘 산정과 관련된 지침이 복잡하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상반된 어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과서를 집필하고 제작하는데 있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교육과정 개정 시 기본 어휘표에 어휘를 선정하는 기준, 수록 조건 및 어휘의 산정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Kwak, Jae-Yong 곽재용(2012), 'The National Spanish Curriculum for High School & the Teaching of the Numerals'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육과정과 수사교육」, Revista Iberoamericana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3:2, 233-260.

_____(2013), 'Sobre la adverbialización en *-mente* de las categorías adjetivales listadas en el Currículo Nacional(2009)'「교육과정(2009) 수록 형용사 범주의 '-mente'형 부사 파생에 대한 소고」, Journal of Mediterranean Area Studies『지중해지역연구』, 15:3, 1-26.

Gyoyukgwajakgisulbu 교육과학기술부(2008), Godeunghakkyeo Gyoyukgwajeong Haeseol 12 Wekugeo『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2 외국어(제2외국어) 』, Gyoyukinjeokjawanbu gosi je 2007-79 ho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_____(2009), Je 2 Wekugeokwa Gyoyukgwajeong 『제 2외국어과 교육과정 』, Gyoyukgwajakgisulbu gosi je 2011-361 ho, Byeolchek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 호, 별책 16.

Gyoyukbu 교육부(1997a), Wekugeokwa Gyoyukgwajeong (II) 『외국어과 교육과정 (II) 』, Gyoyukbu gosi je 1997-15 ho, Byeolchek 14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14.

_____(1997b), Godeunghakkyeo Gyoyukgwajeong Haeseol -Wekugeo-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 Gyoyukbu gosi je 1997-15 ho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Gyoyukinjeokjawonbu 교육인적자원부(2007), El español I, II『스페인어 I, II 』, Gyoyukinjeokjawonbu gosi je 2007-79 ho, Byeolchek 14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4.

Kim, Kwan-Hae 김광해(1997), 'Eowhireokgwa Eowhipyeonga' 「어휘력과 어휘 평가」, Seonchongeomun『선청어문』, 25, 1-29.

Kim, Kyung-Hee 김경희(2001), 'Selección del léxico básico del español y su enseñanza' 「스페인어 기초 어휘 선정과 교수법」, Estudios Hispánicos『서어서문연구』, 19, 3-18.

Kim, Chang-Won 김창원(2012), 'Status and Problems of Vacabulary Education in High School Korean Education'「고등학교 어휘교육의 위상과 어휘교육론의 과제」, Kukeogyoyukyeongu 『국어교육연구』, 44, 229-259.

Yang, Seung-Kwan 양승관(2007), 'Estudio en torno al léxico básico español para el Séptimo Currículum Nacional'「고등학교 스페인어과 교육과정 제7차 기본 어휘에 관한 연구」, Estudios Hispánicos『스페인어문학』, 42, 223-241.

Yun, Young-Sun 윤영순(2010), 'Spain I Eowhisayongjichim'「스페인어 I 어휘 사용 지침」, KICE Jaroyjip『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집(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 2009-41호, 2009. 12. 23)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과목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K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38.

Lee, Kang-guk 이강국(2005), 'El nuevo vocabulario básico español para el 7o Currículum y la cantidad adecuada de clases para su enseñanza'「제 7차 교육과정 스페인어 기본 어휘표 개정안 및 수업 시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Estudios Hispánicos 『스페인어문학』, 36, 427-443.

Lim, Hyeo-Sang et al. 임효상 외(2012), 'Godeunghakkyeo Spain I' 『고등학교 스페인어 I』. Jungangyeopsi gyoyukyeonguwon 중앙입시 교육연구원.

Sin, Hyeong-Wuk 신형욱(2003), 'Je 2 Wekugeokwa Gyoyukgwajeong Eoneojeryeo Jesibanganyeongu'「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언어재료 제시 방안 연구」, Wekugeokeoyuk 『외국어교육』, 2:3, 379-399.

Lee, Keon-Nim et al. 이근님 외(2005), Je 2 Wegukeo Gyoyukgwajeong gesenbanganyeonku『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Seoul 서울: K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an, Sang-Heon 한상헌(2004), 'Une étude sur la sélection du vocabulaire dans les Instructions Officielles de Corée' 「프랑스어 교육과정에서 어휘 선택에 관한 연구」, France Eomunkeoyuk 『프랑스어문교육』, 17, 51-80.

Gómez Torrego, L.(2007), *Gramática didáctica del español*, Madrid: SM.
Real Academia Española(1992),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_____(1999),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_____(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_____(2011a), *Manual de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_____(2011b),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논문투고일자: 2013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자:
게재확정일자:

양승관 한국외국어대학교
e-mail: skygap@hanmail.net